

대답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은 소승보살사상을 세상에 널리 퍼는 일등포교사입니다. 그러나 대오견성의 안목을 갖춘 분은 아닙니다. 조사선이 곧 여래선이고, 여래선이 곧 조사선인 것이니, 그것은 고인들의 자체처(自在處)를 식파(識破)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빠사나, 목조선은 참선이 아니며, 몇 생을 거듭해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물결은 인생을 황폐한 것으로 몰아가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마음의 고향에서 멀어진다든 뜻으로 이해됩니다. 재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독이 우리 몸에 퍼지면 온전히 거동할 수 없지요. 일찍이 부처님께서서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를 삼독이라서 경계할 것을 당부하셨지요. 청정심이 가장 중요합니

“화두들면 가는곳마다 일등선방” “마음은 부처-중생 차별없어요”

다. 청정한 마음에서 이뤄놓은 재물이라면 당연히 만인을 위해 베푸는 데로 돌아갑니다. 자비심으로 베푸는 것은 참으로 값진 행위입니다. 회향할 줄 아는 그것이야말로 값진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스님의 회상에는 출가자들은 물론 재가불자들도 모입니다. 깨달음에는 출·재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수행하는 재가자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 주십시오.

▲부처님 당시의 유마 거사, 마조도일 밑에 방 거사, 이 두 분은 출

가승이 아닌 재가자의 신분이지만 유사 이래 두 분의 거사를 능가할 안목자는 없습니다. 유마 거사는 부처님과 동일한 안목을 갖추신 분이니, 지혜와 변재와 신통, 그리고 중생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그 법기를 들이 참으로 자유자재하였습니까.

참선방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른 법문을 듣고 지도를 받아서 걸음 걸이에 화두를 놓치지 않으면 부엌이나 안방이나 사무실이나 가는 곳마다 다 일등선방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법을 익히지 않고 있을 때는

화두가 있는 듯하다가 서면 달아나고 걸어가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공부를 짓는다면 백 생을 하더라도 진리의 눈이 열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다가 한 화잡담(閑話雜談)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할 때는 열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강도있게 화두를 쟁기면서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쟁기면, 보고 듣는 것이 다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시간은 눈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아주 간절한 한생각만 흐르는 물과 같이 끊이지 않고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진수인 선을 참구하는 참선수행법입니다.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를 오장육부에서 사무치도록 이어간다면, 시절인연을 만나 확연히 열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신심과 분심(信心)을 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스승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스승 없이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쪽 하늘만 보고서 우주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대무변한 세계는 스승 없이 열리지 않습니다.

대담=정성문 처장 (swjung@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buddhania.com)

초(初地)가 있어서 그이러야 저 여인을 정에서 나오게끔 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망명보살이 땅에서 솟아올라 부처님께 예배하니, 부처님께서 앉아있는 여인을 가르키면서 “저 여인이 정에 들어 있으니 망명 네가 여자를 정에서 나오게끔 하여 보아라” 하시니, 망명보살이 앉아 있는 여자옆에 가서 손가락을 세 번 휘기니 여자가 정에서 나오더라.

대중! 문수는 과거 칠불의 스승이거늘 무엇이 부족하여 여인을 정에서 나오게끔 못하였으며, 망명은 초지보살이거늘 무슨 장치가 있어 손가락 세 번 휘기는데 여인을 정에서 나오게끔 할 수 있었느냐?

이 법문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장 높고 깊은 법문인지라 이 법문을 바로 보지 못하면 부처님 살림살이와는 거리가 멀음이다.

시회 대중은 알겠느냐?
良久云
海枯終見底
人死不知心
바닷물이 마르매 바다 밑은 볼 수 있음이나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은 알지 못함이다.

일할(一喝)하시고, 하좌 하시다.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대석스님

고즈넉한 저녁노을이 그 아름다움을 어둠 속에 뱉기지 않으려 발버둥치다 소리없이 풀밭에 스러지는 초저녁. 조실채 댓돌 위 고무신 두짝만이 유난히 희어 보이던 날이었다. 가끔씩 철이든 낙엽이 앞마당을 훑고 지나가지만 조실채 참호지 밖으로 비치는 두 그림자는 석고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을 듯했다.

방안, 곱게 정돈된 채 한쪽 벽에 밀쳐둔 다구와 몇 권의 고서만이 초저녁의 쓸쓸함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저 말없이 가부좌를 뜬 채 정좌하여 열두알만 굴리는 청화 노스님의 모습은 인자한 촌 할아버지를 닮아 있었고 꼭 다문 입술 밑으로 무언가 말을 할 듯 말 듯 한 행자의 모습은 좌불안석이다. 한참을 그렇게 등을 들인 후 이윽고 행자가 말문을 트다.

“스님, 제가 여태껏 이십 여년을 ‘대석’으로 살아왔으니 앞으로의 중생황에서도 꼭꼭하게 큰 돌(大石)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범법 또한 그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당당한 행자의 청탁이다. 찬찬히 행자를 보고 계시던 노스님, 대수롭지 않은 듯 “그렇게 하려무나” 한마디 딱 던지고선 엄주를 감아 들고 일어서신다. 절집안에서 즐기는 새로운 생명의 출발로 여기며 다시 태어나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난다는 의미

속명을 불명으로 사용

현재 수행처서 온몸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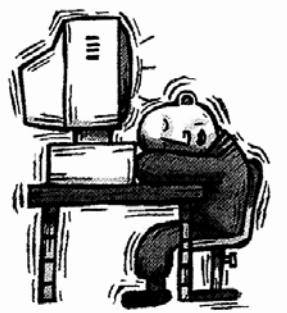
에서 계를 주시는 계사스님이나 은사스님이 새로운 이름 즉 불명(佛名)을 지어 주는 것이 법도다. 그런데 이 당당한 행자는 은사스님의 불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이다. 노스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순순히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소원대로 불명을 속명과 같은 대석(大石)으로 사용케 되었으니 그 이름 또한 불가에서의 인연이 지중하였는가 보다.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대석스님의 사제 되는 행자가 같은 이유로 노스님을 찾아뵈었다가 혼쫓아 났으니 노스님의 심중을 헤아릴 수 없지만 대석스님의 입지가 깊고 단단함을 일찍이 간파하고서 ‘큰 돌(大石)’로 남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건 아니었을까.

대석스님을 보면 옛날 영화에 나왔던 E.T가 연상된다. 굵은 안경테 밑으로 씨익 웃어 보이는 그의 미소는 가히 천만불 짜리다. 귀밑까지 올라가는 입술의 크기는 그렇다 치고 볼바람 일 듯 살랑살랑 눈웃음치는 그 모습은 영락없이 E.T를 닮았다. 그러나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좋아 연구소의 모든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님이다. 직원들의 세세한 사연을 꼼꼼히 챙겨주고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스님이다. 그러면서도 일에 대한 열의와 고집 또한 남달라 하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는 일이 없다. 밥을 새워서라도 일을 마무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바윗돌(大石)같은 스님이다.

새벽 내시, 밤새 빛을 발하던 형광등도 즐기고 있을 시간이다. 밤늦도록 직원들이 작업을 하

다 떠나버린 텅 빈 공간에 대석스님 혼자만이 남아 있다. 한쪽 책상머리에 컴퓨터도 켜지지 않박겨린다. 그제서야 스님은 기지개를 한번 켜고 누비웃으로 앞을 가린 후 잠을 청한다. 이런 생활이 그에게 전혀 불편이 없다. 어쩌면 그에게 온몸밖에 편안한 누워 잠을 청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대석스님 연구소 초창기, 모두가 대석경 전산화란 작업이 풍속의 잡교대라고 비웃을 때 홀연히 전산화작업의 중요성을 깨달아 동참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편안한 잠을 자는 적이 없는 그다. 일본에서 공부하시던 종림스님께서 귀국하여 세계 최초로 대석경의 전산화작업을 시작할 무렵 전자의 본고장이랄 수 있는 일본조차 대석경의 전산화는 염두도 내지 않던 시절이었으니, 모두가 외면하고 헛고생 말라고 말리는 것도 우리가 아니었다. 추운 겨울날엔 연구소 바닥에서 담요 한 장으로 추위를 이겨내고 라면 한끼로 허기를 달래며 칠 팔 년을 견뎌왔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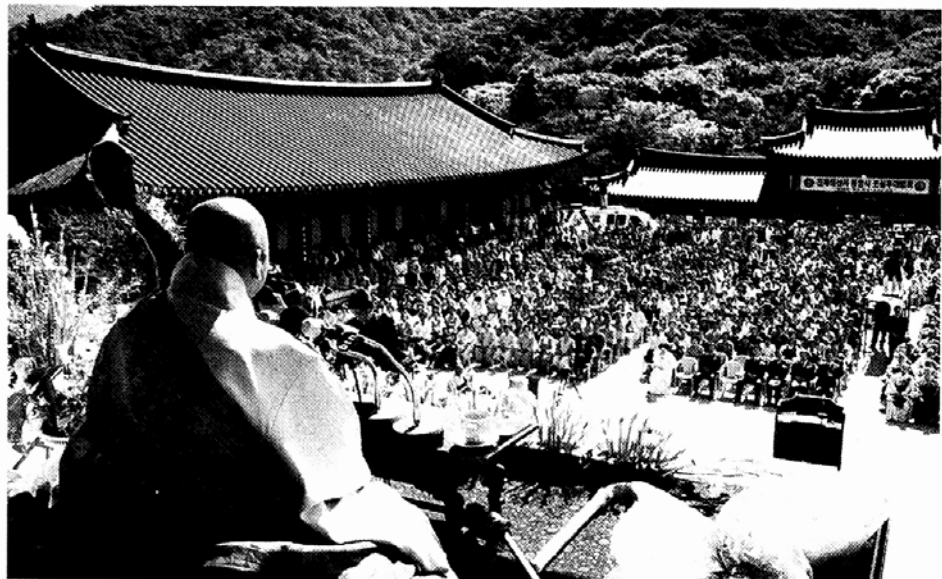


이제 전산화의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는 지금의 고생이 그에게 고생도 아니라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요즘 대석스님은 곡성 성문사에서 소임을 보고 있다. 은사스님 청화 큰스님께서 당부하신 일이라 차마 거절을 못했지만 일주일에 꼭 2~3일은 서울로 올라와 연구소에서 일을 한다. 늦은 저녁 고속버스를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한 후 밤새워 일을 하고 다음날 또 내려가는 대석스님의 뒷모습을 보노라면 저절로 어느 유령가사 한 구절이 생각난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자아 지는가.”

무턱대고 살아온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순간이다. 모든 사물은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고 한다. 자신이 현재 처한 수행처에서 온몸을 던져 수행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요, 큰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대석스님이 오랫동안 애써왔던 작업, 이체자(異體字) 사전(字典)이 12월이면 완성된다. 대석경 연구에 있어 더할 나위없이 훌륭한 업적이 될 이체자 사전의 완성으로도 대석스님은 ‘아름다운 큰 돌, 바윗돌’로 불교계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 틀림없다.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12일 열린 봉암사 태고선원 조실 추대법회에서 진제스님은 법어를 통해 “여래지에 이르면 세간법이 곧 출세간법이고, 출세간법이 세간법”이라고 설했다. 이날 법회에는 2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바람이 불면 풀이 스스로 흔들린다

진제스님 태고선원 조실 추대법어

踏破千聖頂上하니
世法佛法不應讓다
일천 성인의 이마 위를 밟아 파하니
세간법이나 부처법으로는 사의치 못함이다.

識得拄拄杖子하면
一超直入如來地로다
주장자 진리를 아실 것 같으면
한번 뛰어서 여래지에 이릅시다

여래지에 이를 것 같으면,
세간법이 곧 출세간법이고, 출세간법이 세간법이다.

眞道而行風行草偈이라
참 진리의 도를 행함에

바람이 불면 풀이 스스로 흔들림 이로다.

우리 부처님께서 49년 설한 법에 선(禪)의 종지(宗旨)를 선양함이나 이것이 바로 선의 진리의 묘한 맛이로다.

때로는 부처님께서 대중(大家)에게 꽃을 들어 보이셨고, 때로는 자리를 반을 비켜 앉으셨고 때로는 두발로 내어 보이시기도.

이 세 지선(禪)의 묘미 밖에 또한 깊고 은한 관문을 들어 보이시니 천하야호(天下野吼)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할마라.

하루는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법문을 다해 마치시자, 모든 대중은 각자의 처소로 다 돌아갔는데, 한 여인이 부처님 법좌 아래서 갈 줄을 모르고 앉아 있거늘, 문수보살이 그 광경을 보고 부처님께 여쭙기를, “모든 대중은 다 각기 처소로 돌아갔는데, 저 여인은 어쩌서 자리를 뜨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여인이 정(定)에 들어 있으니, 문수네 신력(神力)으로 저 여인이 정에서 나오게 하여 보아라.”

말씀이 떨어지자, 문수보살이 신통으로 백천문수를 허공 중에 나부고, 위오삼장(圍繞三匝), 오른쪽으로 세 번 돌아 존경을 표하는 의식)을 하고, 가지 가지 방편을 다 하여도 여인이 정에서 나오지 않거늘, 부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는 “문수, 문수야, 네가 비록 백천문통묘용(百千神通妙用)을 나부어도 너의 신력으로 는 저 여인을 정(定)에서 나오게끔 못하리라. 하방(下方)세계 42주도를 지나갈 것 같으면 망명초지보살(冥明

18년 동안 300여 쌍의 영혼결혼식 주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한 끊임없이 베푸는 설산 스님의 인간적인 따스함

설산스님 에세이

아침모임

덧없는 인생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백련사 설산 스님의 구도 에세이

- 영혼결혼식, 그 짙긴 인연의 끈
- 여배우의 첫가슴에 써 내려간 반야심경
- 스님의 약혼식
- 한 영혼과 대면하다
- 슬픔을 다스리는 방법
- 내가 체험한 불가사의한 영혼의 세계
- 영혼은 반드시 있다
- 나의 죄는 내가 전생에서 벌여 온 것이다

★ KBS 아침마당 8월31일 출연

*Home Page address: http://www.seolsan.com / *저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풍은3동 321-3 (Tel: 303-0024)
◆ 무료 영혼결혼식에 관련된 문의사항을 받습니다. (Tel: 303-0024)

대표전화 586-0477
팩시밀리 586-0478
동선 정어리 씨
출판 정어리 씨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태원 거룡 범주스님의

신식 검정콩 '金檀花'



“왜 콩을 통째로 삼켜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 다 더 쓰러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처럼 저처럼 쫓아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니 소모된다. 콩은 ‘속퍼레이프’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를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 때문에 힘은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추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르는 신명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 본 사 02) 737-8881
- 강릉지사 033) 643-5577
- 고성지국 055) 672-0078
- 광주지사 062) 375-9986
- 대구지사 053) 983-9222
- 목포지국 061) 279-3788
- 밀양지국 055) 353-1196
- 부산지사 051) 463-5331
- 안산지국 031) 494-8859
- 영주지국 054) 674-1199
- 울산지사 052) 257-7737
- 진주지사 016) 585-2120
- 제주지사 016) 695-6885
- 충청지사 042) 527-0559
- 일본지사 031) 713-5111